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6년 1월 2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월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49년 음력 12월 3일 제74호

희망찬 도약, 무량중생을 구제하는 불교 총지종!!



호강 불교총지종 종령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가슴 가득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지난 과거의 삶은 묻어두고 새로운 햇살과 함께 새로 시작하려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불빛을 밝혀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불빛이 모두를 비추고, 모두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대자대비, 걸림 없이 일체를 다 완성하는 부처님의 크신 위신력의 광명이 나와 일체 중생에게

신년법어

부처님께서는 여래의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아상·인상·수자상·중생상과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모두 없애고,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 불, 법, 승 삼보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행동하면 일체의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은 반야를 증득하는 것이라, 반야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부처님의 넓고 크신 원대한 대비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심으로 정진하여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사상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여래의 불법은 일체 사물에 걸림이 없고 어디서 오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 것도 없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보아 최상의 지혜를 얻어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실천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불법의 구경(究竟)이요, 최상의 경지를 이루어 동체대비의 불국정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깨달음은 부처님의 지혜 증득

달음과 행복의 불빛을 밝혀 주십니다. 夫學般若菩薩(부학반야보살) 先當起大悲心(선당기대비심), 發弘誓願(발홍서원), 精修三昧(정수삼매), 誓度衆生(서도중생)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키고, 큰 원을 발하여, 정밀하게 삼매를 닦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신년사



우승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보살님들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이 불교계 주요 종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총지종을 창종한 이후, 그 동안 수많은 원로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정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밀법(密法)을 펼쳐주시신 원정대성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승단을 위해 애써주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이 종단의 초석을 다지고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화사한 꽃을 피워 곳곳에서 울미니반메홍의 진언행자들이 해탈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효강 종령님을 모시고 광주 범행사, 전주 흥국사, 서울 관성사, 대전 백월사의 한공불사, 경로법회, 청소년 수련대회와 한.중.일 불교도대회 등 대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치르다

남을 배려하는 대아적인 생활

많은 중생들이 총지종의 법안에서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원정 종조님의 사상을 연구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제양성을 위해 승자재교육, 신규스승 교육강화, 종단에 적합한 노인요양시설, 장묘시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의 신심은 더욱 깊어지고, 즐겁고 신바람나는 수행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단과 교도, 종사자들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승단은 더욱 깊고 높은 수행과 정진으로, 교도들은 승단의 모든 불사에 대한희심과 보살심을 종사자들은 불사에 대한 대발심(大發心)과 원력(願力)으로 서로가 맞물려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 동안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대아적인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서원정진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해 대승적인 서원을 세워봅시다. '一即多(일즉다), 多即一(다즉일)', 나의 개인의 일이 모든 일이고, 모든 일은 나의 개인 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의 수행이 올바르고 수승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진언행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포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의 소원성취만을 바라지 말고 남과 사회, 국가의 소원성취를 바라는 차고 등골고 큰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로다"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종단의 스승님과 교도들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시시저저(時時處處)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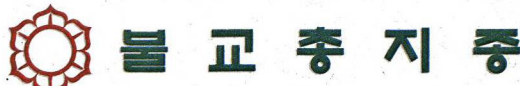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교도 여러분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승단은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종령 효강

- | | | | |
|----------|-----|----------|-----|
| 통리원장 | 우승 | 중앙총의회 의장 | 원승 |
| 총무부장 | 선도원 | 부회장 | 연등원 |
| 재무부장 | 시정 | | |
| 사회부장 | 환수원 | | |
| 교정부장 | 지희심 | 사감원장 | 법성 |
| 서울경인 교구장 | 연등원 | 부산경남 교구장 | 대월 |
| 대구경북 교구장 | 지광 | 충청전라 교구장 | 밀공정 |



총지종의 불단 중앙에 울미니반메홍의 본존과 오른쪽은 종대팔엽염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고 생명의 성장과 탄생을 의미하는 태장계만다라, 왼쪽은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금강계만다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풍경소리

화합을 일구는 배려

자이나교인 사하 장군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군은 부처님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사하 장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처럼 명망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깃발을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개종사실을 선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깊고 진실한 존경심으로 뜻을 굽히지 않는 장군을 부처님은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하 장군,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이나교 교단에 보시하고 자이나교 수행승들에게 공양해야 하오." - 박경준/동국대학교수

게으름에 대한 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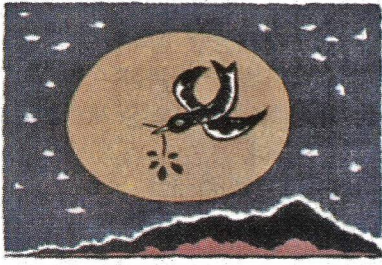
판화 / 남궁산

게으른 사람은 춥다고 일하지 않으며 덥다고 일하지 않으며 배가 고파도 일하지 않으며 새

벽이라고 일하지 않으며 저녁이라고 일하지 않는다.

이런 탓으로 그는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 『선생지경』중에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데도



판화 / 남궁산

파랑새 한 마리가 어느 집 담장위에 앉았습다. 그 집에선 저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뿜고 있었습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아요." "넌 성적이 이게 뭐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파랑새는 마음이 울적해져 이내 자리를 뒀습다. 잠시 후 파랑새는 다른 집 지붕에 앉아 날개를 쉬었습다. "어보, 내 나이 마흔인데 당신없이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아버님, 분갈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맛난 칼국수 해 드릴게요." 그 집에선 서로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말로 넘쳐났습다. 파랑새는 마침내 행복이 가득한 그 집에 등지를 틀었습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남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즐지 않는 귀한 선물인데도, 후 인색하게 굴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 김동하/시인

원정 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46화-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고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알지라. 반야바라밀다란 대신주이며 대명주이며 무상주이며 무등등주이다.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며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 공부 좀 더해야지..원..!

두 각자님!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먼 미래에 대해 쓸데없는 두려움도 갖지 말고 오로지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은 되풀이 될 수 없으니깐요.

지당하신 말씀! 원래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탕하는 법이죠.

경전의 말씀 중 중요한 것은 주(呪)인데...주란..

아아.. 내 인생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떡입술 각자님! 인생은 ctrl+z(콘트롤+z)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좀 전에 분명 말씀 드렸죠?

어구 대성사님 열 받으셨다.

진언(眞言)이란 말그대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배 안고파?

만트라 만트라 하니깐 만두 생각이 난다..

주(呪)란 인도의 범어인 만트라(Mantra)를 번역한 말이며 진언, 다라니와 동등한 말입니다.

말랄라~! 우리는 진실한 사이.

만두 사먹으러 가겠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므로 알지라!

반야바라밀다의 큰 진언은 깨달음의 진언이며 위엄고 비교할 데 없는 진언이므로 일체의 고통을 다 없앤다. 라는 뜻입니다.

크으..

옴마니반메훤 진언을 외우면 투명인간이 될지도 몰라. 히히히.

옴마니 반메훤!

정수일홍피-http://home.paran.com/octagonp

이달의 명상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 모래 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 물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은 노여움과 증오, 회한 따위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 두고 쉽사리 잊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물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모래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란 노여움이나 증오 따위를 자주 느끼지만 모래 위에 쓴 글씨가 쉽게 지워지는 것처럼 쉽사리 잊어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은 타인의 험담이나 중상모략, 불쾌한 이야기를 들어도 결코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마음

속에 새겨두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듯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판단에 자신의 마음 가짐을 맡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각각 범부중생과 수행자 및 수행의 완성자인 불보살에 비교해 보면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은 범부중생이고, 모래 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은 수행자, 물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은 불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부중생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헤아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아 생활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충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태권도
-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예 : 010-3913-6352, 이예숙 : 010-4737-9321

마음공부가 되는 영화이야기

백지순 보살



1) 꽃피는 봄이 오면

삶은 뜻밖의 순간에 미소 짓는다



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약간의 언더 본 듯한 <브레스트 오브> 류의 영화적 배경. 그 주변 인물들의 사랑과 애증, 가족에 등 예상할 수 있는 드라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영화다.

하지만 이렇듯 조금은 상투적인 영화에 양념을 하고 간을 맞추고 먹음직스럽게 세팅을 한 공헌은 단연코 배우들의 힘이다. 최민식은 그의 카리스마를 온데 간데 없이 구긴 채,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을 전혀 여과 없이 소화하고 있다.

허탈한 너스레 같은 웃음 속에서 매우 대재 없는 현우라는 인물마저 정이 가게 만드는 그만의 매력이 영화에 힘을 특별히 실어준다.

현우 어머니 역할의 윤여정은(내 기억으로 영화 속에서 그녀의 연기를 보는 것은 조금은 오랜만인 듯하다) 브라운관에서의 여력을 스크린 속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한다. 마냥 기대고 싶어지다가도 마냥 안아 주고도 싶은, 그런 강하면서도 여린 어머니를 연기한 그녀는 누가 보아도 '우리 엄마 같은데'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2004년도 청룡영화상 음악상 수상작답게 멋진 음악들도 보물창기하듯 영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

대재 없는 학교의 대재 없는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대재 없는 선생 현우, 그들은 성공적으로 대화를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너저분하기만 했던 현우의 인생에는 정말 봄날이 찾아 올 수 있을까?

역사

배우가 힘이다

사실 이 영화는 상당히 뻔하다. 실의에 빠져 있던 주인공은 다른 이들의 삶에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는,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결말.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탄광촌, 형편없는 연주 실력의 중학교 관악부에



한 마디

겨울철 난로 위에 올려놓은 구수한 보리차 같은 추억과 감성이 담긴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하면서 넋두리 반 기대 반으로 흔맛맞히는 영화.

그래서 가끔 먹어줘야 하는 영양제 같이 마음에 힘이 되는 영화.

너저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뜻밖의 순간에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다가도 한순간 뒤편 돌아서서 나 몰라라 하는 것, 혹은 평생 내 마음 몰라주는 냉담한 연인과 갈다가 어느 순간 바로 옆으로 다가와 은근슬쩍 웃어주는 능글거림, 그것이 삶의 알맞은 면인 듯 하다. 하지만 사람에게 언젠가 뜻밖의 순간이 존재하는 법, 언젠가 기회는 찾아오고, 그 기회는 다시 자신을 살린다는, 마음이 파스해지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

번번이 오케스트라의 오디션에 떨어지고, 나이 서른이 넘도록 홀어머니 밑에서 애정 어린 잔소리 들어가며 빌붙어 사는, 게다가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며 옆에서 내조하던 연인마저 자존심 때문에 떠나보냈던 트럼펫 연주자 현우(최민식 분)의 삶 또한 그랬다.

좋아하는 음악하며 행복하게 살았건만 연주자로의 길은 멀고도 멀고, 먹고 살지며 음악하기엔 자신이 용납 못하는, 결국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너저분한 인생.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결국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억지로 강원도의 한 중학교 관악부 임시교사로 부임한 현우.

빛바랜 상징들만 예전의 영광들을 말해주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음악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올해 관악부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될

생활속의 밀교

새해불공은 한 해의 큰 살림불공

▶종조님께서는 '하루동안 행복함은 새벽 불공함에 있고, 칠일동안 행복함은 자상불공에 함에 있고, 한달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에 함에 있고, 일년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승단 스승님과 교도여러분들께서 그 어느때보다 용맹정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불공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한 해의 모든 불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해불공과 같은 마음자세와 용맹정진을 1년 열두달 동안 지속시켜야 합니다. 올해의 새해불공은 더 나은 해가 되시고,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새해불공 중에 염송정진과 함께 마음에 새겨 보시고 행동으로 옮겨보도록 하십시오.

먼저, 남의 단점을 살피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나의 단점을 고치는 데 주목하십시오. 둘째, 항상 부드럽게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심회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허망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합시다. 꾸며서 말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을 말할 것이며 참다운 말을 하도록 합시다. 이간양설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화합하고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합시다. 나쁜 말, 악하고 추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친밀하게 대화하도록 합시다.

셋째,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적게 가지도록 합시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억겁동안 쌓아온 선업(善業)을 일시에 불태워 없앤다고 했습니다. 진심(嗔心)은 먼저 나를 상하게 합니다. 진심은 수행에 가장 큰 적이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을 조복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또한 원망심도 여러 겁에 걸쳐 윤회케 하는 악업 중에 하나

입니다. 원망심을 가지고는 수행해야 절대 진전이 없습니다. 좀더 나아진 '나'를 원한다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원망심이 일어났다면, 마음으로 참회하고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참회와 환희의 회사법(法)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 수행거리이며 마음공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수행이 잘 안될까요? 그것은 마음에 새겨 두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

항상 부드러운 말을 사용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 없애야

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고 생활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기억해놓아야 할 일, 걱정 근심거리 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잠시라도 가만두지를 앉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경전내용 가운데 자기가 새겨두고 싶은 경전구절이나 가르침의 내용을 한가지 정하여 자기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화두로 삼아 늘 기억하며 그 가르침대로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늘 '옴마니반메훔'을 지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분한 마음과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것을 생각해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불공에 용맹정진하시는 교도분들에게 마음의 인사로써 선물을 대신합니다. '금년 한 해는 마음을 잘 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훔. (법경/ 시무국장 겸 연구원)

죽비소리

진실로 지녀야 할 일곱가지 재물

믿음의 재물과 계율의 재물
재부끄러움과 남부끄러움의 재물
다음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
이것을 일곱가지 재물이라 한다.

지혜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공경하고 받들어 잊지 말라.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정정하게 법을 관하여

살아서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남자건 여자건 물은 것 없이
끝내 가난한 일 없나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잘 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꽃같은 세상을 위해 서울·경인교구는 함께 합니다

벽 룡 사

주교 : 전수. 묘심해
정사. 원 당
☎ (02)889-0211

시 법 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밀 인 사

주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762-1412

정 심 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관 성 사

주교 : 정사. 해 정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법 천 사

주교 :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실 지 사

주교 :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2)983-1492

지 인 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 지 사

주교 : 전수. 선도원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2)568-0802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서울·경인교구 일동



원송 정사
중앙총의회 회장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병술년 새해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법신 비로

자나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가득하시어 교도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더욱 건강하고 복된 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은 순간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한 순간의 찰나에 삶과 죽음이 갈릴 수도 있고, 천당과 극락의 세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는 한 순간의 숨소리인 찰나의 순간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며, 선업을 지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에 묻혀있는 중생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이날이 그 날 같고, 그 날이 이 날 같은 삶을 살아가는 뿐, 세월의 흐름속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술년 한 해에는 모든 분들이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흘러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보람되고 알찬 순간 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의 촛불을 켜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연말연시, 재야의 종소리가 끝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병술년 새아침!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날들이 순백의 눈길처럼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험

맹세가 되고 말지라도 새해 아침이면 마음에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고, 그 누구라도 새해 소망 몇 개는 빌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빌었습니까? 또 자신과는 어떤 약속을 하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맑은 바람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들 마음에 소망의 창을 열고 그 창에 촛불하나를 밝히는 일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화

에서 벗어나 환한 웃음이 가득한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을 아름다움과 즐거움, 행복함이 가득한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와 '너'라는 분별심과 '나'라는 굴레의 집착을 버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나누어 주는 보시행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새해 아침에 다짐한 그 약속이 꼭 지켜지고, 동녘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빌었던 그 소망, 소망이 성취되어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도합시다.

우주법계의 시간과 시절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나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의 굴레속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새해가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다사다난(多事多難), 지난 해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의 우리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첫 번째는 주역의 괘(卦) 상화하택(上



대원 정사
부산경남 교구장

아집과 거저의 그물을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사회가 되길...

하下澤)으로 선정했더군요. 서로 분열하고 이반(離反)하는 상극(相剋)의 불(火)과 물(水)을 상(相)으로 묘사했습니다. 중생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가 어찌 순탄만 하겠습니까? 아집과 편견, 탐욕, 무지 등으로 선현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화합이 아닌 깨어진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양두구육(羊頭狗肉)-양고기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중국고사의 상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팽박하고 인정머리 없는 걸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무리들이 판을 치는 한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상의 세태속에서 묻혀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 일까요? 송구영신(送舊迎新)-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시절 바른 것이 아닌 때 묻은 찌꺼기는 과감히 던져 버리고 옹고 바른 깨끗한 알맹이를 받아 지나야겠다는 마음의 다짐

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포장된 가면 벗고 탐욕과 아집의 그물을 벗어나 크고 바른 마음과 그릇을 키워 포용하고, 거저없이 서로 비취줄 수 있는 간담상조(肝膽相照)-간과 쓸개의 상호작용의 사회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사명이고 바른 길이 아니겠는지요. 새해 덕담(德談)이 빠질 수 없겠네요!! 소원하시고 소망하시세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기원해 준다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작자수(自作自受), 자업자득(自業自得)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것에서 복을 빌고 기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고 맑은 마음으로 매사에 임(臨)하고 노력하면 내가, 주위가, 세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도록 더욱더 노력합시다.

과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듯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희망만이 충만한 병술년 밝은 새해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은 분노도 악이고, 악의와 선망과 시샘도 악이며, 인색함과 탐욕도 악일뿐만 아니라 위선, 기만, 오만, 교만심, 계으름도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과 분노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바른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목적, 올바른 말씨,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태도, 올바른 노력, 올바른 의도, 올바른 명상이라는 길 이외에는 다



연정원 전수
서울경인 교구장

팔정도 의 실천으로 선업을 만들자

른 길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시어 탐욕과 분노 등 악의 불을 꺼

개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인 교구장으로서 한해를 돌아볼 때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스승님들의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수행에 힘쓰고, 교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서울경인 교구는 교세확대를 위한 씨앗을 뿌린 한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 서울경인 교구는 창종 당시의 불꽃같은 교세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아 스승님들과 교도분들이 화합하여 더욱더 용맹정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병술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되길 바라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희망차고 아름다운 태양빛으로 가득한 병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도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여 건강과 행복, 소원 성취가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새해에도 태양은 어김없이 동녘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에 이르는 길로 모든 세상 만물은 변화하는 제법무상, 일체의 모든 법은 '나'란 존재가 없는 무아의 경지를 깨우치는 제법무아,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정한 마음가짐을 강조한 열반적정의 삼법인과 연기법 즉 인연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지은 인(因)과 주변 환경의



밀공정 전수
충청-전라 교구장

인연법을 깨쳐 소중한 한 해를...

연(緣)에 의한 인연화합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인을 짓게 되면 반드시 나쁜 과를 받고, 좋은 인을 짓게 되면 반드시 좋은 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인연법의 세상입니다. 주위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본성은 청정한 불

성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좋고, 나쁜 사람, 슬프고, 기쁜 사람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인 것입니다. 단지 개개인의 집착과 아집에 의해 분별심이 발생하여 남을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손가락은 나뉠대로 소중하고 맡은 역할이 있듯이 개개인의 사람도 소중하고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연법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서로 간에 차별하는 분별심을 없애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면서 좋은 인을 만들어 살기좋은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성도합시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온 세상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염송할 때 제일 먼저 '이전에 내가 지은'으로 시작하는 참회문을 외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회할게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견해가 어떻게 나와 남을 고통으로 이끄는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참회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문에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운 실천이란 고통을 바로 보고 그 원인을 알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천일 것입니다. 이를 여덟가지로 나누면 팔정도라 하고 여섯으로 나누면 육바라밀이고 셋으로 하면 삼팔관행이라고 합니다. 지혜란 이 실천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지



지광 정사
대구경북 교구장

참회와 실천수행으로 지혜 증득

헤로운 것 일까요? 종조남께서는 생활과 교조(敎條)를 원만하고 정당하게 결부된 생활불교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주,좌,와,어,무,동,정,이 모두 바른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해지면 오욕락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진리는 알리고 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게,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할 뿐 지혜로운 실천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참회없이 교육을 통한 지식만 쌓은 것은 잘못

이며 먼저 인간이 된 연후(然後)에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이 자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같이 먼저 인간이 되려는 사람이 적은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에 넘어지면 땅을 짚어야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하고서 이웃에게 잘못을 빌지 않고 조상이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상(想)없이 베풀고 양보하며 계율을 지키며 지혜롭게 잘 참고 견디며 항상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처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지혜를 기르는 것이 마장을 이기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을 뿐, 그것을 알든 모르든 지은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올 한해 지혜로운 실천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한 해되시길 서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끝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황 사

주교 : 전수, 법수원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 전수, 수증원

전수, 혜원정

☎ (043)256-3813

만 보 사

주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호제

☎ (042)255-7919

백 월 사

주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흥 국 사

주교 : 전수, 밀공정

☎ (063)224-4358

충청 · 전라교구 일동

'빈그릇운동' 동참자 1년만에 120만명 돌파

인도 등에 3,800만원 전달



◇총무아트홀에서 "빈그릇운동" 100만인 서약 캠페인을 기념하는 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계가 시작한 대표적 국민운동인 '빈그릇운동'의 동참자가 100만을 넘어섰다.

현재 운동 동참을 서약한 사람은 모두 120만 832명. 운동 시작 1년여 만에 이룩한 성과다.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는 12월 20일 총무아트홀에서 '빈그릇운동 100만인서약캠페인 결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04년 9월 6일 시작된 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와 동참하고 있는 군대, 식당, 기업,

학교, 단체 등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됐다.

에코붓다는 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전원주, 배종옥, 이재룡, 손현주 등과 부산시 각급 학교차원의 동참을 이끌어낸 설봉군 부산시 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빈그릇운동을 통해 모금된 기금 7542만원의 일부를 인도 JTS(1500만원), 한국JTS(1500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800만원)에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쌀 한

톨도 나눠먹던 미덕이 있는 나라였다"며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빈그릇운동의 놀라운 성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도 "중교와 정파를 떠나 빈그릇운동과 밥퍼나눔운동은 동일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토회와 함께 나눔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에코붓다 지도법사 범륜 스님도 "빈그릇운동은 적게 먹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 버리는 것이 없는 운동이며 자연을 닮아가는 운동"이라며 "작은 실천을 통해 못생명과 더불어 사는 삶의로의 전환이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범륜 스님을 비롯해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원불교 이선종 교무,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 이재용 환경부 장관, 최일도 목사 등 300여명의 대중들이 참석했다.

한편 "빈그릇운동"은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종교계 및 환경단체와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음식물의 잔반을 없애는데 더욱더 매진할 예정이다.



동국대 北서 건학 100주년 대법회

북한 보헌-유점사 등 건학 기여 사찰 5곳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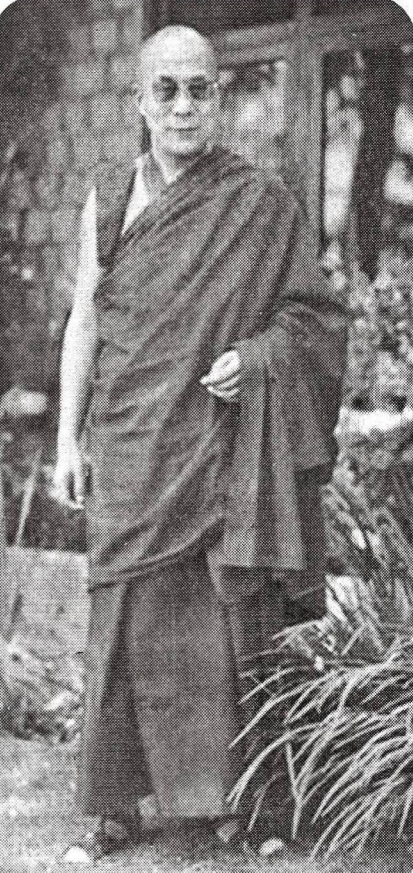
동국대(총장 흥기삼)는 건학 100주년을 맞는 2006년 5월 8일을 전후해, 평북협, 북한 조불련과 공동으로 1906년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건학에 기여한 보헌사, 유점사 등 북한 5개 사찰을 방문, 건학 100년의 역사를 되짚는 학술대회와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동국대는 평북협과 공동으로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5개 기여사찰에 대한 지원 및 북한불교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국대 100주년 기념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7월 북한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에서 흥기삼 총장이 보헌사를 참배하면서 조불련 측과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번엔 평북협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최종 일정 및 행사 내용은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평북협은 지난 12월 13일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과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상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06년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건학에 기여한 사찰은 모두 17개. 이중 북한에 속한 사찰은 영변의 보헌사를 비롯해 금강산 유점사, 해주 심광사, 안변 석왕사, 함흥 귀주사 등 모두 5개 사찰이다. 당시 이곳에 주석 하던 불교계 선각자들은 불교정신에 맞는 현대적 인재 양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종합학교를 설립해야한다는 발원으로 사재를 출연, 불교계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인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의 사찰이 한국전쟁으로 소실, 현재 보헌사 등 몇몇 사찰만 복원돼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라이 라마, 인터넷 홈페이지 'dalailama.com' 개설

인터넷으로 불법과 평화 메시지 전달



◇티베트불교 성인 달라이라마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달라이 라마는 최근 공식 개인 홈페이지인 달라이 라마닷컴(dalailama.com)을 개설,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으로 불법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티베트뉴스사이트(파울)이 12월 11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달라이 라마의 노벨상 수상 16주년과 '국제 인권의 날'에 맞춰 오픈한 달라이라마닷컴에는 그의 법회 스케줄, 법문내용, 관련 사진, 최근 뉴스, 자주하는 질문 등이 영어로 서비스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도 있어 전 세계 불자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이 사이트를 개발한 관계자는 "(이 홈페이지는)달라이 라마 개인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 평화, 자비, 전 인류를 위한 책임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개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달라이 라마나 티베트와 관련된 웹사이트는 다수 개설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개인 홈페이지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달라이라마닷컴의 도메인의 소유권은 제이씨로즈닷컴(JCROWS.COM)이라는 기업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주요도메인 판첸라마닷컴(Panchenlamma.com)과 함께 티베트 망명정부에 기증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 주변 수행환경 효율적 보존 기대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 시·도지사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전통사찰 수행환경 및 풍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종단에서 추진해 왔던 불교관련 국가법령 개정작업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을 종단의 요청대로 개정하게 돼 매우 큰 성과"라며 "전통사찰 경내지는 물론 주변지역(사유지 포함)에 대한 공공목적의 개발 및 위락단지 조성, 향락업소 설치 등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전사법 개정안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함으로써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규정이 불명확해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건설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사찰 정보 한눈에

불교사업단 'koreatemple.net' 개설

주 5일제 시대를 맞이한 도시인들은 이제 한나절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 1박2일 패키지 코스를 원하고 있다. 이 같은 패키지 관광코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풍성한 사찰정보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팀은 12월 15일 전통사찰 관광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리뉴얼 홈페이지는 한국의 사찰, 불교문화관광, 커뮤니티 등 3개 섹션으로 분류돼 더욱 전문화된 사이트로 탈바꿈했다.

리뉴얼 홈페이지에는 총 902개 전통사찰 중 670여개 사찰의 DB가 총망라돼 있다. 여기에는 3D로 제작된 사찰 내부 구조, 동영상 자료 등 기존의 평면적 사찰 안내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3차원 세계가 펼쳐진다.

koreatemple.net 사이트가 아직 완벽하

게 구축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이트를 다녀간 네티즌들의 요청에 의해 작년부터 임시 오픈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곳을 다녀간 네티즌들 중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코리아템플 사이트 한국어판 페이지를 찾은 한국인 접속자는 49,766명(45%)인데 반해 외국에서 접속한 사람은 61,433명(55%)였다. 그 중 미국이 49,208명으로 44%를 차지했다. 영어로 제공되는 사이트 또한 외국인 접속자가 훨씬 많음은 물론이다.

이는 한국불교 문화콘텐츠에 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사업단은 분석했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 대 상 : 일반시민
-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6시, 화·목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40,000원, 월 \30,000원
정각사 - 월 \20,000원
-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사진으로 다시 본 2005년



화합과 단합된 힘으로 종단의 중풍을 세우고 내실있는 종단운영, 청정한 수행풍토, 엄격한 계율로 정통성을 확립하고 교세를 확장한 한 해...



▶ 총지종 창종주 원정 대성사 제98주기 탄신제

지난 1월 29일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호강 종령예하가 참석한 가운데 제98주기 원정 대성사 탄신법회를 봉행하였다.



▶ 총지생활요가센터 개원

지난 4월 중순부터 서울 총지사와 부산 정각사에서 총지종 교도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가센터를 개원하여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총지불교대학개강

지난 5월 19일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경남, 대구경북교구 스승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승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총지불교대학을 개강하였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가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술년 한 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종단은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 서울 관성사, 대전 백월사 현공불사 등 그동안 연기되었던 종단의 대소사를 원만히 치루고 종단의 중풍과 기틀을 바로 잡으며 교세를 확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슬픈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쁜 일들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교도기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 광주 법황사 현공불사

지난 5월 25일 광주에 위치한 법황사 현공불사를 봉행하였다. 광주 법황사는 광주시 남구 구동에 대지 308평 연건평 240평의 지하1층, 지상2층의 전통 한옥식으로 신축하였다.



▶ 대전 백월사 현공불사

지난 10월 20일 대전시 도마동에 위치한 백월사가 현공불사를 봉행 하였다. 대전 백월사는 대지103평, 연건평 226평의 지상4층 빌딩을 서원당으로 개조하였다.



▶ 전주 흥국사 현공불사

지난 5월 26일 전주에 위치한 흥국사 현공불사를 봉행하였다. 전주 흥국사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대지 307평 연건평 150평의 2층의 전통 한옥식으로 신축하였다.



▶ 여름학생수련법회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 학생법회를 봉행하여 총지종 수행법을 체득하고 호연지기의 기상을 배웠다.



▶ 제6회 경로법회

지난 8월 30일 충남 아산 도고유스호텔에서 '부처님세상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법회를 봉행하였다.



▶ 수인사 고구마꽃 활짝

지난 8월 포항 수인사에서 고구마꽃이 활짝 피어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방영되었다.



▶ 서울 관성사 현공불사

지난 10월 17일 서울 행촌동에 위치한 관성사 현공불사를 봉행하였다. 서울 관성사는 대지 137평, 연건평 169평의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하였다.



정통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 삼밀수행의 도량

한국 정통밀교 종단-불교총지중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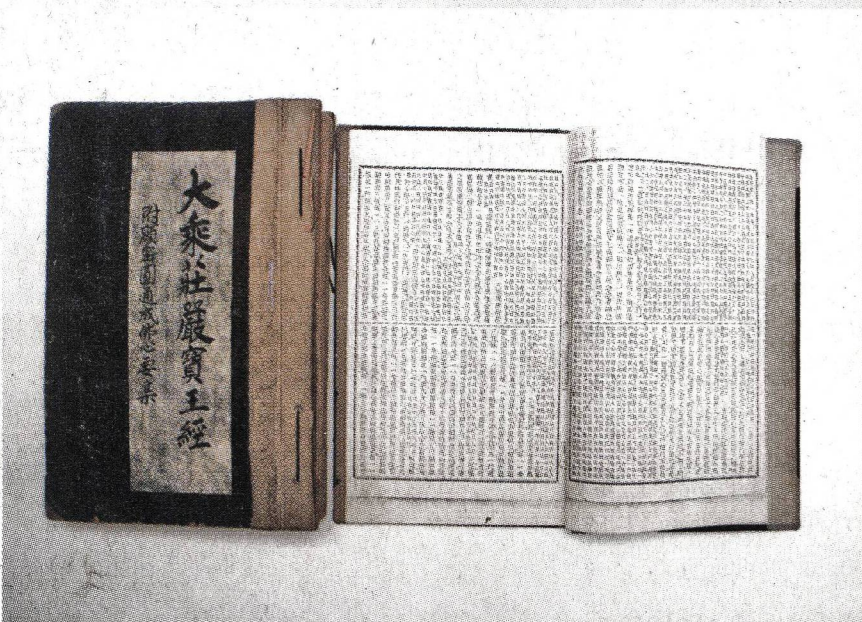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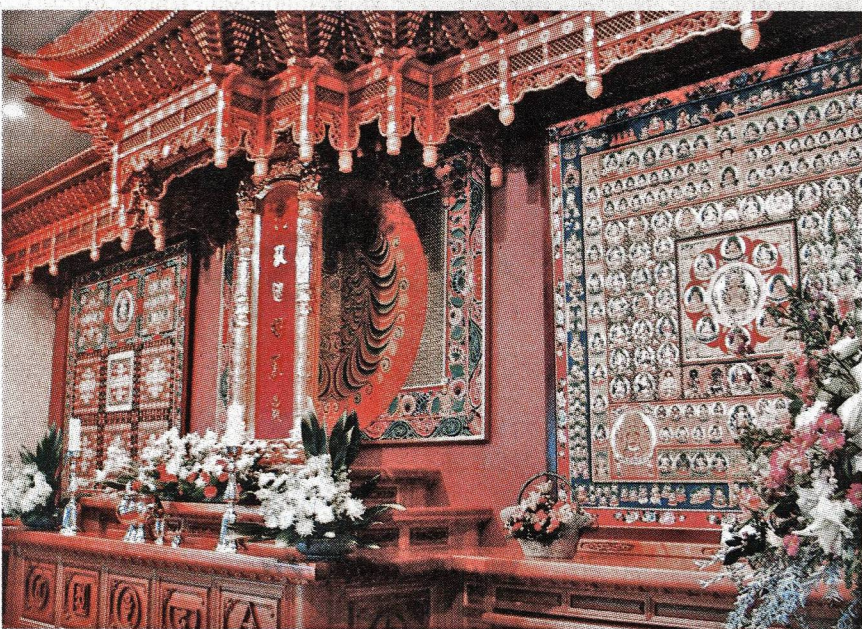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락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지중보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